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385회)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 정 부 건 의 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9월 8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 정 부 건 의 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8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는 그 피해 면적만 290ha임
- 충청북도는 병해충 사전 예찰과 방제,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작업 수행, 농가 지원 사업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이 있음에도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되어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과수화상병 같은 국가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열악한 식물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64만 충청도민과 함께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림

□ 붙 입 : 대정부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등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 정 부 건 의 안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전국에서 60ha 발생된 이후 '18년 80ha, '19년 128ha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342ha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올 한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는 그 피해 면적만 290ha에 이르며, 지난 5월 22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해 100일 넘게 과수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 충북 290ha, 경기 40ha, 충남 6.7ha, 전북 4.7ha, 강원 0.6ha(면적순)

과수화상병은 세균성으로 전염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유일한 방제수단은 폐원 뿐입니다. 때문에 올해 충청북도의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은 무려 6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병해충 사전 예찰과 방제,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농가 지원 사업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물 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

보상금의 일부(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이미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의 일부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동물방역과 같이 예방약과 치료제를 서둘러 개발 보급하고, 열악한 식물병해충 방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9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